

취준생 올린 사회지도층 취업사기

광주지검, 광역의원·교감·정당간부·예술인 등 26명 적발

지위·친분 등 과시하며

취직 앞선 대가 금품 편취

최근 결혼한 취업준비생 A씨는 지인의 편에 빠져 신혼집마저 날릴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 직원으로 넣어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신혼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건넨 것이다. 하지만 지인은 돈만 갠 뒤 잠적했다. 결혼한 가장인데 '백수 생활'도 모자라 신혼집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으니 자괴감에 괴롭기만 하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B씨는 "한국공장에 취업시켜줄테니 들어오라"는 친척의 연락을 받고 2013년 5월 입국했다. 취업 성사비용으로 1800만원을 요구해 이를 건넸는데, 이후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취업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현실 탓에 이들의 감언이설에 피해자들이 쉽게 넘어가면서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역의원, 정당 간부, 금융인,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들도 대거 사기 행렬이 가담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광주·전남지역 취업사기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6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건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취업사기범들은 광역의원, 사립학교 교감, 정당 간부, 언론인, 예술인, 금융인, 건설업자, 결혼중개업자 등 다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유력 인사와의 친분 과시 등의 방법으로 절박한 심정의 취업준비생이나 그 부모들을 울리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친척·지인 관계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가 많아 쉽게 속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금액이 달랐다. 대기업 정직원엔 7000만~1억원, 계약직은 2000만~3000만원, 사립학교 교사는 7000만~1억원, 관공서 계약직은 1000만~2000만원 정도였다.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현직 광역의원과 모 사립중학교 교감 등 3명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구직자 등 7명을 속여 6억2000만원을 받아채웠다가 법정에서 사기 됐다. 특정 정당 간부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2억3000만원을 가로챈 정당인 등 2명도 적발됐다.

또 '사립대학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며 1억원을 받은 회사원, '조각을 보건소 등에 채용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가로챈 예술인, '버트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운전기사 등도 범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척을 입국시켜 한국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800만원을 가로챈 결혼중개업자, '아들을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자영업자도 있었다.

하지만, 해결을 자처하던 이들에게 돈을 건넨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이나 그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취업전선 괴한만 입었다.

검찰은 취업알선 대가를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노만석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취업준비생들은 그 부모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사기 당해 이중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취업난에 편승해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준생 두 번 올린 대학... 졸업유예생에 등록금 징수

광주·전남 1500명에 5억 받아

최악의 청년 실업대란 속에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15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로 인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지역 대학들은 졸업유예생들에게도 강제적으로 5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졸업유예생은 1만7000여명이었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남대(603명), 조선대(503명), 순천대(112명), 광주대(109명), 호남대(69명), 남부대(20명), 목포대(12명), 광주여대(7명), 송원대(1명) 등 9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두 1463명의 대학생이 졸업유예 혜택을 받았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유예 기간을 거쳐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졸업유예기간에 학생들에게 최소 1학기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거나 졸업유예비 등을 걷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으면서 학생을 상대로 등

록금 징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별로 졸업유예생에게 받은 등록금은 조선대 4억15만원, 전남대 9742만원, 순천대 2747만원, 광주여대 2351만원, 광주대 475만원, 남부대 280만원 등 모두 5억6153만원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별 졸업유예 비용도 대학별로 제각각 자체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졸업유예를 미루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제도약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원종 리스트' 흥준표 지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른바 '성원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흥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원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원종 전 경남 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서 1

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흥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연형뉴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단체 회원들이 8일 '옛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조성하라. 5·18의 상징과도 같은 도청 건물을 정부 마음대로 활용하지 말라'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월단체, 옛 도청 복원 촉구 내일 집회

"시민 여러분 5·18시민군의 최후의 항쟁지이자 1980년 5월의 상징과도 같은 옛 전남도청을 함께 지켜주시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대시민 보고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5월단체 회원과 시민 500여명이 모여 5·18의 상징과도 같은 옛 전남도청 건물에 오롯이 새겨진 5·18의 흔적을 최대한 복원하고 그에 걸맞은 용도로 도청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 5월단체는 건물 곳곳에 남아있을 계엄군 총탄흔적, 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이 썼던 상황실, 방송실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뒤 보전하는 주장을 수년전부터 정부에 요구해왔다.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란 점, 국가(군인)가 시민에게 집단발포를 한 국가폭력의 장소란 점에서 5·18기념관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물론 밝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은 5월단체의 요구에도 수년간 제대로 된 옛 전남도청 활용계획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문화전당 측이 돌연 5월단체 단체장 앞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는 도청 복원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행사 초정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5월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 7일 양측간 물리적 충돌 사태를 불러왔다.

5월단체는 충돌 직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 센터의 도청 건물 입주를 거부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단체장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김형호기자 khh@

양주에 녹여 필로폰 밀수 3명에 징역 4~7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필로폰을 양주에 녹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A(68)씨 등 3명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중독자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 소지·투약에 비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2월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양주병(1ℓ)을 수화물로 위장,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약 30g으로 1000명(1회 투약 약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폭염에 고물상서 에어컨 '슬쩍'

○기록적인 폭염을 못 이겨 고물상에서 에어컨을 훔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부부 2쌍이 시원한 바람 한 번도 못 쏘고 경찰에 달미.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44)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고물상 출입문 앞에 놓인 중고 에어컨과 실외기 한 대(50만원 상당)를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

○에어컨을 훔치는 데 성공한 A씨 등은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 한구석에 에어컨을 방지하고 사용하지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훔쳤는데, 생각지도 않은 에어컨 설치비용이 20만원이나 든다기에 설치할 엄두를 못 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수뢰 혐의'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체포

시청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대가성 뇌물을 받아 정권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8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에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씨를 자신의 서울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광주시청 4층 정책자문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 5~6명은 정책자문관실 공용 PC에 든 일부 파일과 문서를 압수했다. 또 증거 확보 차원에서 김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심장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끈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압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체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자본 없이도 재테크 가능!!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없이도 공평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18만원 (해당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1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광신대학교

다같이 · 多 즐겁게 · 樂 모이자 · 房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

장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강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연무)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정	주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목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주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주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